

##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 이념적 동기를 중심으로\*

홍지영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가 유럽시민들의 유럽회의주의를 강화할 뿐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정치균열 부상을 야기함으로써 정당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동기를 분석하였다. 특히 서유럽 17개 회원국의 정당과 중동부 11개 회원국의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동기를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측면과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이념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중동부 유럽 회원국에서 일부 전략적 동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의 모든 EU 28개 회원국에서 정당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있어서 이념적 동기가 전략적 동기보다 단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가 유럽통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럽의 정당체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합의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유럽회의주의, 전략, 이념, 포퓰리즘, 민족주의, 정치균열

### I. 서 론

유럽연합(EU)의 권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그동안 유럽 각국에서 부차적으로 간주되던 유럽이슈<sup>1)</sup>가 정치화되기<sup>2)</sup> 시작하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4662)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E-mail: geeyoung164@yonsei.ac.kr)

다. 물론 유럽 각국에서 유럽이슈가 아직 완전히 정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유럽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각하면서 유럽이슈의 정치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Braun et al. 2016; De Vries 2007; De Wilde 2011; Green-Pedersen 2012; Hooghe & Marks 2009; Hutter & Grande 2014; Kriesi 2016). 이렇게 유럽이슈가 정치화되고, 유럽 각국에서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국내선거 및 유럽의회선거에서 선전함에 따라 유럽회의주의 정당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심화된 유럽 금융위기, 난민위기 등으로 유럽회의주의가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유럽회의주의로 인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서 정당 차원의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관심은 배가되고 있다.

사실 이전에 유럽회의주의는 국가별 정치 환경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주로 영국이나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기에 다른 국가에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이슈였다. 또한 유럽이슈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되기 이전에는 유럽이슈의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일반 유럽시민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태도나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유럽이슈가 뚜렷이 정치화된 이후에는 유럽이슈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볼 수 있는 유럽회의주의 정당 관련 연구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Braun et al. 2016; Taggart 1998).

물론 유럽통합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유럽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럽회의주의도 무시 못 할 현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시민들은 복잡하거나 어렵게 인식되는 유럽통합 이슈나 EU 사안에 대해 많은 경우 정당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메시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유럽시민들이 유럽통합이나 EU 사안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ay 2003; Steenbergen & Jones 2002; Steenbergen et al. 2007; Van der Eijk & Franklin 1996). 즉,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가 시민차원의 유럽회의주

- 
- 1)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유럽이슈는 유럽통합 이슈와 EU이슈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한 이슈가 정치화된다는 것은 해당이슈에 대해 서로 뚜렷이 상반된 입장을 지닌 정치 세력이나 정당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서로 강조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에서 유럽이슈에 대해 뚜렷하게 찬성하는 입장의 정치세력과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유권자를 동원함에 있어서 각각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강조해야 유럽이슈가 완전히 정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Adam et al. 2013; Van der Brug et al. 2015).

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부상함에 따라 유럽이슈가 정치화되고, 유럽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균열이 좌우균열과 같은 기존의 정치균열을 대체함으로써 유럽정당체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렇듯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유럽시민들이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 새로운 정치균열이 부상할 수 있다는(홍지영 2018) 인식 하에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의 개념 및 여러 정의를 소개하고,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취하는 동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취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동기를 전략적 측면의 동기와 이념적 측면의 동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당이 단순히 다른 경쟁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보이는지, 아니면 정당의 기본적인 이념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의 전략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부상이 과연 유럽통합 및 EU의 지속 가능성과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럽 각국의 정당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

### 1.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 개념 및 정의

사실 유럽회의주의는 많은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작 개념이 모호한 틈에 명확한 개념화나 정의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놓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Flood 2002; Kopecky & Mudde 2002; Szczerbiak & Taggart 2000; Szczerbiak & Taggart 2008; Taggart 1998; Vasilopoulou 2009).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학자는 Taggart(1998)이다. Taggart는 정당의 유럽 회의주의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유럽통합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강경하게 반대하는 유럽회의주의 유형이고(outright and unqualified opposition),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유럽통합을 인정하는 유형이다(contingent or qualified opposition). 일반적으로 전자는 유럽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유럽통합이 실현되는 여러 형태 중 하나인 EU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이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럽회의주의를 강성유럽회의주의(hard euroscepticism)와 연성유럽회의주의(soft euroscepticism)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기도 하였다(Szczerbiak & Taggart 2000; 2008). 강성유럽회의주의는 유럽통합에 대한 강경한 반대를 지칭하고 연성유럽회의주의는 유럽통합을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 EU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성회의주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한 탓에 EU 정책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반대나 불만 등이 연성회의주의에 속하는 문제가 생기며, 연성회의주의와 강성회의주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유럽회의주의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왔는데(Kopecky & Mudde 2002), 이들은 Easton(1975)이 정치적 지지를 정치체제에 대한 포괄적지지(diffuse support)와 정치엘리트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로 나누어 설명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정체(polity)에 대한 포괄적 지지와 EU 엘리트 및 정책수행에 대한 구체적 지지를 구분하여 유럽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Kopecky & Mudde 2002). 이들이 정당의 유럽에 대한 태도를 구분한 4개의 유형 중에서 Eurosceptic(유럽정체 구축에는 호의적이지만 EU에는 회의적인 유형)과 Euroreject(유럽정체 구축 뿐 아니라 EU에도 회의적인 유형)의 경우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럽회의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럽회의주의를 세분화하여 유형화하는 시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Flood 2002; Vasilopoulou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럽회의주의 개념은 유럽통합의 한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이 고려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Boomgaarden et al. 2011; Conti & Memoli 2012). 본 연구에서도 유럽회의주의가 유럽이라는 하나의 포괄적 정체(polity) 구축 자체에 대한 반대와 EU라는 구체적 실현체에 대한 반대를 동시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2.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다양성

일반적으로 유럽회의주의는 주로 정당체계의 주변부에서 위치하는 정당에서 나타나고 있다(Halikiopoulou et al. 2012; Marks et al. 2002; Neumayer 2008; Sitter 2001; Taggart 1998). 즉, 유럽통합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은 주로 좌우 균열 정치공간의 양극단 정당이 취하는 경향이 있다(Hooghe et al. 2002; Marks et al. 2002; Taggart 1998). 사실 서유럽의 경우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정당은 주류정치에 대한 반대나 반기성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포퓰리즘 정당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주변부 극단정당들은 친유럽입장을 보이는 주류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정당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Adam et al. 2013; Spoon 2009; Van de Wardt et al. 2014).

물론 최근 일련의 유럽 위기나 영국의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유럽시민들 차원에서 유럽통합 및 EU에 대한 반대 입장이 더욱 강렬해지고, 동시에 유럽회의주의 입장의 포퓰리즘 정당이 경쟁정당으로 급속도로 부상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류정당들도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주어 전략상으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채택하기도 한다. 또한 이전에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강하게 보이던 주변부 반기성정당들도 연정에 참여하거나 집권을 하게 되면서 본래의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약화하는 등 기존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Taggart & Szczerbiak 2008). 즉, 유럽시민들의 유럽회의주의적 입장 강화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주류정당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전략적으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취하기도 하고, 기존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주류 정치권으로 진출함에 따라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에 변화를 주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는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을 모두 유럽회의주의 정당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유럽회의주의 정당을 언급할 때 주로 국가주권이나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극우정당에 중점을 둘에 따라 유럽회의주의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최근 남유럽 등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좌파정당이 선전하고, 이들이 다른 유럽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극좌정당들도 중요한 유럽회의주의 정당으로 간주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들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의 경우 각각 유럽회의주의를 취하는 기본 이념이나 동기가 다양하며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이들을 하나의 유럽회의주의 집단에 넣어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회의주의라는 하나의 현상

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Brack 2020; Conti & Memoli 2012; Fagerholm 2019; Vasilopoulou 2009).

우선, 극우정당과 극좌정당 모두 정치공간의 주변부나 극단적 위치에서 나타나는 정당이지만, 이들은 각각 다른 차원의 정치균열 공간의 주변부나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극좌정당의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의 좌우균열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공간에서 좌측극단에 위치한 정당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유럽에 비판적이다. 즉, 이들은 EU를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로 간주해 비판하는 관계로 유럽차원에서 추구하는 탈규제, 사유화, 국가차원의 긴축정책 강화, 복지축소 등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이러한 이유로 유럽통합이나 EU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극우정당의 경우 사회·문화적 균열로 인한 정치공간<sup>3)</sup>의 우측 극단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전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유럽통합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주권이 위협받는 점을 우려하여 유럽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임태훈 2022).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유럽회의주의 정당을 언급할 때 주로 극우정당에서 나타나는 유럽회의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었다.

한편, 최근 포퓰리즘과 유럽회의주의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연결시키는 연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Kneuer 2019). 이들 연구에 따르면 포퓰리즘과 유럽회의주의를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포퓰리즘의 경우도 사회·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럽회의주의도 사회·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연구에서 두 개념이 공통점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사회·문화적 균열은 80년대 이후 혼경, 페미니즘, 이민 등의 다양한 새로운 이슈가 기존의 좌우균열에 흡수되지 못하면서 부상한 정치균열이다(Kitschelt 1994; Kriesi et al. 2008). 환경주의-자유주의-대안주의(Green-Libertarian-Alternative, GAL)를 한 축으로 하고, 전통주의-권위주의-민족주의(Traditional-Authoritarian-Nationalist, TAN)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균열로서 표퓰리즘 극우정당이나 녹색정당의 부상을 잘 설명해주는 균열이다.

### III.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동기

그렇다면 이렇게 성격이나 이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어떠한 동기에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띤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기가 있는가? 앞에서 소개했듯이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주로 정치공간의 극단에 위치하기에 다른 경쟁 주류정당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럽회의주의를 취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체성, 또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념적 동기에서 자연스럽게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다른 여러 동기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전략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 중 어떠한 동기가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를 더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1. 전략적 동기의 유럽회의주의

일반적으로 유럽에 회의주의 입장을 보이는 정당들은 주로 좌우균열 정치공간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인 경우가 많다(Halikiopoulou et al. 2012; Marks et al. 2002; Neumayer 2008; Sitter 2001; Taggart 1998). 물론 최근에는 정치공간의 중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류정당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류정당은 유럽통합이나 EU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것은 주류정당들이 초기부터 유럽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EU를 구축한 주체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유럽회의주의 정당은 주변부에 위치한 극단정당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주변부 정당들에게 유럽이슈는 주류정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 가능하다고 본다(Adam et al. 2013; Sitter 2001; Spoon 2009; Taggart 1998; Van de Wardt et al. 2014). 일반적으로 한 국가 정당체계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당들은 집권을 하거나 주류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성 주류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럽이슈라는 차별화가 가능한 이슈를 이용하게 되고, 유럽이슈에 대해 선명성 있는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주변부 극단정당들은 유럽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권자를

이끄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유럽이슈를 강조하고 부각하고자 하는 전략적 동기가 크다(De Vries 2007; De Vries 2010; De Vries & Hobolt 2012). 특히 유럽이슈의 경우 경쟁정당, 특히 주류정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분열이슈(wedge issue)로 간주되고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도구라 할 수 있다(Van de Wardt et al. 2014). 일반적으로 정당의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전략적 동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이 정치공간의 주변부에 위치함으로써 주류정당과의 경쟁에서 부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현재 유럽에는 여러 다양한 차원의 정치균열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의 정치공간은 일차원적 좌우균열에 기반 한 정치공간이 지배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 균열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공간이 추가되었다 (Kitschelt 1994; Kriesi et al. 2008). 유럽이슈가 사회·문화적 정치공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슈인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유럽회의주의를 살펴보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균열은 빼놓을 수 없는 정치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극좌정당의 유럽회의주의는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 균열로 인한 정치공간에서의 차별화 전략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정당이 여러 다양한 차원의 정치공간에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극단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차별화 동기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 **가설 1 (좌-우 공간 주변부 위치에 따른 차별화 동기)**

좌우균열 정치공간의 중심부에서 먼 공간에 위치한 정당일수록 주류정당과의 차별화 동기에서 유럽통합에 반대한다.

#### **가설 2 (사회·문화적 공간 주변부 위치에 따른 차별화 동기)**

사회문화적 균열 정치공간의 중심부에서 먼 공간에 위치한 정당일수록 주류정당과의 차별화 동기에서 유럽통합에 반대한다.

#### **가설 3 (사회·경제적 공간 주변부 위치에 따른 차별화 동기)**

사회경제적 좌우 균열 정치공간의 중심부에서 먼 공간에 위치한 정당일수록 주류정당과의 차별화 동기에서 유럽통합에 반대한다.

또한, 각 국가에 존재하는 정당이 유럽균열 정치공간에 있어서의 차별화 전략 동기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각 국가의 유럽통합에 대한 전반적 분위기가 친유럽 성향인 경우 이와 차별화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럽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할 동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해당 국가 정당들의 전반적 입장이 유럽통합에 호의적이지 않는 경우 정당이 유럽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데 있어서 차별화 전략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에 대한 입장 분포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균열 정치공간에서의 차별화 전략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각국에서의 유럽통합에 대한 전반적 분위기는 해당 국가 정당들의 유럽입장 평균값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각국에서의 평균값이 해당 국가의 유럽균열 정치공간의 중심부로 볼 수 있다.

#### **가설 4 (유럽균열 공간 주변부 위치에 따른 차별화 동기)**

해당 국가의 유럽입장 중심부에서 떨어지는 입장을 보이는 정당일수록 차별화 동기에서 유럽통합에 반대한다.

## **2. 이념적 유럽회의주의**

이념이 정당의 유럽회의주의를 모두 설명해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를 중요한 동기로 설명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Kopecky & Mudde 2002; Marks & Wilson 2000; Marks et al. 2002; Neumayer 2008; Sitter 2001). 물론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의 이념적 기반이나 추구하는 정책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하나의 동일한 이념으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유럽회의주의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공통된 이념적 기반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Halikiopoulou et al. 2012). 이에 따르면 극좌정당에서 나타나는 유럽회의주의와 극우정당에서 나타나는 유럽회의주의 모두 그 바탕에는 민족주의라는 공통적 기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Halikiopoulou et al. 2012) 즉, 극우 유럽회의주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족주의에 기반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극좌 유럽회의주의는 사회·경제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형태의 유럽회의주의를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족주의라는 이념으로 인한 유럽회의주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이념으로 인한 유럽회의주의의 경우, 유럽통합이나 EU의 신자유주의 성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당이 유럽회의주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차원의 공동사회정책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복지축소나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극좌정당의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으로 인한 유럽회의주의로, 이것은 유럽통합을 국가 정체성이나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유럽회의주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극우정당의 이념적 유럽회의주의를 분석할 때 제시되는 설명이다.

이렇듯 정당의 유럽회의주의를 두 가지 차원의 민족주의 이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 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의 민족주의 이념 중 어떠한 민족주의 이념이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가설 5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에 의한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에 의해 유럽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 **가설 6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이념에 의한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정당이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이념에 의해 유럽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유럽회의주의가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과 같은 급진·극단 정당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급진·극단 정당의 경우 대부분 반기성정치적(anti-political establishment) 태도나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성정치에 대한 적대감은 포퓰리즘 이념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포퓰리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지만(Moffitt & Tormey 2014; Mudde 2004; Van Kessel 2014), 거의 모든 학자들이 포퓰리즘의 핵심적 특징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포퓰리즘은 ‘대중(people)’과 ‘엘리트(elite)’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anovan 2004; Mudde 2004; Rooduijn et al. 2014; Stanley 2008). 또한 포퓰리즘은 ‘대중’을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트’에 대비시키면서 순수하고 긍정적

인 존재로 평가하고, 정치에서의 대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의 경우 주류정치세력이나 기득권 정치세력을 엘리트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이 반기성정치를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홍지영 2019; Pirro et al. 2018).

물론 학자에 따라 포퓰리즘을 이념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며(Mudde 2004; Stanley 2008), 일종의 담화(discourse)로 보기도 하며(Aslanidis 2016), 정치전략(Weyland 2001) 또는 정치인의 정치스타일(Jager & Walgrave 2007)로 보는 등 포퓰리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중에서 포퓰리즘을 이념으로 간주하는 경우 포퓰리즘을 ‘반엘리주의(anti-elitism)’과 ‘대중중심주의(people centrism)’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 일종의 ‘연성이념(thin ideology)’으로 보고 있다(Mudde 2004; Rooduijn et al. 2014; Stanley 2008). 최근 포퓰리즘을 연성이념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점점 이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포퓰리즘을 ‘반엘리주의’와 ‘대중중심주의’라는 두 핵심 요소에 기반 한 이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한편, 포퓰리즘이 한 정당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이념으로 인식되는 경우 해당 정당은 단순히 반엘리트 입장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엘리트 입장을 강조하고 중요시할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도 정당이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에 따라 해당 정당의 포퓰리즘 이념 정도를 측정한 바 있기 때문에 해당 정당의 반엘리트 입장의 강조 정도를 통해 해당 정당의 포퓰리즘 이념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포퓰리즘 이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 **가설 7 (포퓰리즘 이념에 의한 유럽회의주의)**

반엘리트 입장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포퓰리즘 이념에 의해 유럽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 **IV.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으로 취하는 동기가 유럽통합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어떠한 동기가 중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이론이나 주장에 바탕을 두어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발표된 채플힐 전문가설문조사(CHES, Chapel Hill Expert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sup>4)</sup> CHES 자료는 EU의 2019년 당시 28개 회원국<sup>5)</sup> 뿐 아니라 터키와 같은 EU 가입후보국이나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유럽 각국의 모든 정당들의 기본 정보 뿐 아니라 이념적 위치, 이념적 기반, 유럽통합 이슈, 여러 사회적 이슈, 경제적 이슈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뿐 아니라 강조도를 등을 측정한 자료로 본 연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분석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CHES 자료는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및 이념적 측면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여러 가설 검증에 필요한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전략적 동기나 이념적 동기 파악에 필요한 각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 정도, 좌우균열 정치공간에서의 위치, 사회·경제적 정치공간에서의 위치, 사회·문화적 정치공간에서의 위치 뿐 아니라 포퓰리즘 이념을 측정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반엘리트 주의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 분석에 적합하다.

한편, 본 연구가 서유럽 뿐 아니라 중동부 EU 회원국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어떠한 동기에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회원국의 모든 정당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6)</sup> 다만 초기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가입한 중동부 회원국 간에는 EU 가입 시기 뿐 아니라 가입 배경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공산주의 경험으로 인한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성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 
- 4) CHES 자료는 2-4년마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정당수준의 자료로서, 전문가들이 유럽의 모든 정당들을 평가한 자료이다. CHES 자료는 유럽 각국의 모든 정당들의 기본정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과 강조도, 득표율, 의석수 등을 다양한 정보를 측정한 자료이다. 특히 정당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 유럽시안의 강조 및 중요도 등 유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자료이다. 각국의 여러 정치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정당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설문조사인 만큼 신뢰도 및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 5) 현재 EU 회원국의 수는 2020년 영국의 탈퇴로 인해 27개국이지만, 본 연구 분석자료는 2019년 자료이므로 2019년 당시 EU 회원국 수는 28개국이라 할 수 있다.
- 6)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몰타, 키프로스 등 서유럽 17개 회원국과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중동부유럽 11개 회원국이다. 이중에서 영국의 경우 2020년 EU를 탈퇴했지만 2019년에는 아직 회원국으로 남아있었던 만큼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판단하여(강유덕 2022; 2023) 본 연구는 서유럽 회원국과 중동부 회원국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태도를 보이는 동기를 각각 별도로 분석한 후 이 두 결과를 비교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모든 정당들을 한 집단에 넣어 분석하는 경우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가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각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 정도이다. 이것은 각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나타내는 연속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CHES 자료에서 각 정당의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을 측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 정도는 1에서 7까지의 값으로 측정한 연속변수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럽통합에 호의적인 것을 의미하며, 7에 가까울수록 유럽회의주의 입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 국가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국에 속해있는 각각의 정당에 대해 평가한 값의 평균값을 나타내므로 1부터 7까지의 구간 중 소수점까지 나타나는 연속변수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전략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로 나누어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전략적인 동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공간의 주변부에 위치할수록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차별화 동기를 살펴보고자 4개의 가설을 설정했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좌우균열 정치공간, 사회·경제적 균열 정치공간, 사회·문화적 균열 정치공간 내에서의 주변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공간의 중심부로부터 정당이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sup>7)</sup> 또한 각 국의 유럽통합에 대한 전반적 유럽입장에 비해 차별적인 입장을 보일수록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속해있는 정당들의 유럽입장의 평균을 낸 값으로부터 각 정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

7) 우선, 좌우균열 정치공간에서의 정당의 위치는 CHES 자료에서의 일반적 좌우입장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정치공간에서의 정당의 위치는 CHES 자료에서 경제적 좌우 입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및 복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0에서 10까지 값을 가진다. 이때 0에서 가까울수록 해당 정당은 국가개입이나 복지에 호의적인 입장이며, 10값에 가까울수록 성장이나 경쟁에 호의적인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문화적 입장은 앞에서 설명한 환경주의·자유주의·대안주의(Green-Libertarian-Alternative)와 전통주의·권위주의·민족주의(Traditional-Authoritarian-Nationalist)를 양극단으로 하는 정치공간에서의 정당의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전통주의/민족주의적 입장에 호의적이고, 10값에 가까울수록 환경주의나 문화적 자유주의 등의 입장에 호의적이다. 각각의 정치공간에서의 주변적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심값인 5에서 각 정당의 입장을 뺀 값의 절댓값을 사용하였다.

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이념적인 동기로 인해 정당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각 정당의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사안에 대한 입장,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사안에 대한 입장, 포퓰리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회·경제적 사안이란 국가의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의 개입이나 국가차원의 복지정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좌우입장 정도를 측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경제적 차원의 좌우입장에서 좌파 입장이 강할수록 경제분야에서의 국가개입이나 복지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우파입장이 강할수록 국가개입이나 복지에 반대하고 성장이나 경쟁에 호의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경제적 정치공간에서의 좌파에 가까울수록 사회경제적 민족주의가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적 사안은 전통주의, 권위주의, 민족주의 사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좌우입장을 측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문화적 좌우입장에서 우파 입장이 강할수록 전통주의, 민족주의에 호의적인 것으로 사회·문화적 민족주의가 강한 것을 나타낸다. 한편 유럽회의주의가 포퓰리즘 이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요소로 간주되는 ‘반엘리트주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이 경우 최근 여러 연구에서 한 정당이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얼마나 던지는 가로 정당의 포퓰리즘 정도를 측정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정당이 반엘리트 입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측정한 변수를 사용하여 정당의 포퓰리즘 이념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편, 앞에서 소개했듯이 종속변수로 삼은 각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1부터 7까지 분포된 연속변수이며, 전략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여러 독립변수 또한 연속변수로 이루어진 관계로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서유럽 회원국과 중동부유럽 회원국 간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뿐 아니라 EU 가입 시기 및 동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집단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 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가 시민차원의 유럽회의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동기를 전략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념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의 CHES 자료를 분석하여 여러 연구나 주장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유럽 17개 회원국의 144개 정당이며, 중동부 유럽 11개 회원국의 103개 정당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을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서유럽 회원국 분석결과

서유럽 17개 회원국의 144개 정당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분석모형의 F값의 유의확률을 고려해볼 때 회귀분석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의 결정계수( $R^2$ ) 역시 0.76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2019년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변수	회귀계수(SE)
차별화 동기	좌우균열 공간 주변위치	0.20(0.13)
	사회·문화적 공간 주변위치	-0.01(0.07)
	사회·경제적 공간 주변위치	0.11(0.12)
	유럽평균입장 거리	-0.14(0.10)
이념적 동기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정도	0.30(0.05)***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정도	0.14(0.05)***
	포퓰리즘(반엘리트 강조)	-0.31(0.04)***
	상수	-2.254(0.38)***
	F값	62.96***
	결정계수( $R^2$ )	0.76
	사례수(N)	144

\* \*\*\*: p<0.01, \*\*: p<0.05, \*: p<0.1

※ 출처: 2019년 CHES 자료

<표 1>을 바탕으로 서유럽 회원국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동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략적 동기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치공간의 주변부 또는 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정당들이 주류정당과의 경쟁에서 차별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유럽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동기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좌우균열 정치공간, 사회·경제적 정치공간, 사회·문화적 정치공간에서의 차별화 동기를 고려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서유럽 회원국 정당들에 있어서 위의 모든 정치공간에서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동기는 전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정치공간의 주변부나 극단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전략적 동기로서 해당 국가 정당들의 전반적인 유럽 평균입장에 비해 차별적인 입장을 보일수록 유럽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는 가설도 제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한 국가에서의 전반적 유럽입장과의 차별화 동기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서유럽에서 기존에 친유럽 입장을 보이던 주류정당들이 급진·극단 정당의 부상으로 인해 점차 유럽에 대한 회의적 입장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즉, 서유럽 각국에서 이전보다 유럽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가 약화된 만큼 유럽통합 입장을 통한 차별화 효과가 없어진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전략적 동기 뿐 아니라 이념적 동기도 살펴보았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유럽회의주의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차원의 민족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족주의와 사회문화적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동기를 검증하였다. 또한 유럽회의주의가 반기성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급진·극단 정당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성정치나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이 포퓰리즘의 핵심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여 포퓰리즘 이념으로 인한 유럽회의주의의 동기도 고려하였다.

사회경제적 민족주의와 사회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유형의 민족주의 이념과 포퓰리즘 이념으로 인한 유럽회의주의의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이념적 동기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이념적 동기는 반엘리트 입장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이념적 동기 (0.309)와 자국의 정체성이나 문화 수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적 동기(0.297)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U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반대하는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이념적 동기

(0.14)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이나 포퓰리즘 이념으로 인한 이념적 동기보다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회원국의 유럽회의주의에서는 이념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2. 중동부유럽 회원국 분석결과

중동부 유럽 11개 회원국 정당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분석모형의 F값의 유의확률을 고려해볼 때 회귀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중회귀분석의 결정계수( $R^2$ ) 역시 0.82로 나타나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19년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변수	회귀계수(SE)
차별화 동기	좌우균열 공간 주변위치	0.04(0.09)
	사회·문화적 공간 주변위치	0.06(0.06)
	사회·경제적 공간 주변위치	0.16(0.08)*
	유럽평균입장 거리	0.40(0.10)***
이념적 동기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정도	0.29(0.03)***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정도	0.12(0.04)***
	포퓰리즘(반엘리트 강조)	0.23(0.04)***
	상수	-2.465(0.30)***
	F값	60.73***
	결정계수( $R^2$ )	0.82
	사례수(N)	103

\* \*\*\*:  $p<0.01$ , \*\*:  $p<0.05$ , \*:  $p<0.1$

※ 출처: 2019년 CHES 자료

중동부유럽 회원국의 경우도 역시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략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 중 어떠한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전략적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유럽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좌우균열 정치공간, 사회·경제적 정치공간, 사회·문화적 정치공간에서의 주변부 위치로 인한 차별화 전략으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보고 관련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중동부 유럽 회원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정치공간에서의 차별화 전략 동기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157). 즉, 정당들이 사회·경제적 정치공간의 주변부에 위치할수록 유럽에 회의적인 입장이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유럽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적 좌우 정치공간이나 사회·문화적 정치공간의 주변부로 인한 전략적 동기는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전략적 동기로서 해당 국가 정당들의 전반적인 유럽입장에 비해 차별적인 입장을 보일수록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가설도 검증하였는데, 중동부 유럽 회원국 정당의 경우 한 국가의 평균 유럽입장과의 차별화 동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0.40). 즉, 정당들이 해당 국가의 전반적 유럽입장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40% 증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동부 유럽의 경우 서유럽에 비해 정당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평균입장이 대체로 호의적인 상황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중동부유럽 회원국 정당들의 경우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있어서 서유럽 회원국과는 다르게 일부 전략적 동기에 있어 유의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동기 뿐 아니라 이념적 동기도 살펴보았는데, 서유럽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당 차원의 유럽회의주의를 사회·경제적 민족주의와 사회·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유형의 민족주의 이념적 동기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유럽회의주의가 반기성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급진·극단 정당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엘리트주의를 핵심요소로 하는 포퓰리즘 이념으로 인한 동기도 검증하였다.

일단, 세 가지 이념으로 구분하여 정당 차원의 유럽회의주의 이념적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이념적 동기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이념적 동기는 국가정체성이나 문화 수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0.286)과 반엘리트 입장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이념적 동기(0.227) 모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U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반대하는 사회·경제적 민족주의로 인한 이념적 동기

(0.12)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국가정체성 보존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이나 반엘리트 포퓰리즘 이념으로 인한 동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중동부 유럽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입장 동기를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의 이념적 동기가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전략적 동기도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VI. 결 론

일반적으로 유럽시민들은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유럽사안이나 EU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당의 입장이나 메시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탓에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는 유럽시민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정치균열 부상을 야기함으로써 정당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당들이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동기를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정당의 유럽회의주의 동기를 전략적 측면과 이념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정당이 단순히 경쟁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보이는지, 아니면 정당의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발표된 CHES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유럽 17개 회원국의 144개 정당과 11개 중동부 회원국의 103개 정당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었다.

우선, 전략적 동기에 있어서 서유럽 17개 회원국의 경우는 일반적 좌우균열 정치공간, 사회·경제적 정치공간, 사회·문화적 정치공간, 각국의 유럽입장 정치 공간에서의 주변부 위치로 인한 차별화 전략 동기는 전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유럽의 경우 기존에 친유럽 입장을 고수하던 일부 주류 정당이 각국의 전반적인 유럽회의주의 추세에 맞추어 유럽통합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약화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동부 유럽 회원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정치공간 및 유럽 정치공간에서의 주변부 위치로 인한 전략적 동기가 어느 정도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념적 동기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민족주의 이념과 포퓰리

증 이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유럽 회원국과 중동부 유럽 회원국에서 모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이념적 동기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로 극좌정당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민족주의 이념과 극우정당이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이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 회원국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 이념도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 회원국 모두에서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중동부 유럽 회원국에서 일부 전략적 동기가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분석대상인 모든 EU 28개 회원국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유럽회의주의에 있어 이념적 동기가 전략적 동기보다 단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문화적 민족주의 이념과 포퓰리즘 이념이 정당의 유럽회의주의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당의 전략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과연 유럽통합 및 EU의 지속가능성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해주며, 유럽 각국의 정당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들이 전략적 동기에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해당 정당이 집권 의지를 갖게 되거나 주류로의 편입을 원하는 등의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유럽회의주의 입장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략적으로 유럽회의주의를 취하는 정당들의 경우 환경에 따라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철회 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유럽통합에 위협이 덜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념적 동기에서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해당 정당의 이념적 기반이나 철학이 쉽게 변화기 어려운 만큼 유럽회의주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유럽통합의 지속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에 있어 서유럽 회원국과 동유럽 회원국 모두에서 이념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유럽회의주의가 유럽통합에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부상이나 약진이 유럽통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럽에서의 정당체계 특징이나 정치균열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당차원의 유럽회의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유럽시민 차원에서의 유럽회의주의가 유럽회의주의 정당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각국에서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주류정당으로 진입하는지의 여부 등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유덕. 2022.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통합유럽연구』 13(1), 87-120.
- 강유덕. 2023.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유럽발칸연구』 47(1), 77-111.
- 임태훈. 2022. “프랑스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의 근원에 관한 연구-국민주권주의와 초국가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40(4), 243-264.
- 홍지영. 2018. “독립적 정치균열로서의 유럽균열의 부상: 유럽선거에서의 유럽회의주의 정당 투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8(2), 269-302.
- \_\_\_\_\_. 2019. “반기성정치적 관점에서 본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유럽통합 위기.” 『국제정치논총』 59(2), 91-124.

#### 영문 자료

- Adam, Silke, Michaela Maier, Claes H. de Vreese, Andreas R. T. Schuck, Vaclav Stetka, Carlos Jalali, Gilg U. H. Seeber, Ralph Negrine, Lilia Raycheva, Rosa Berganza, Jolán Róka, Boguslawa Dobek-Ostrowska, Lars Nord, Matthias Balzer & Manuela Baumli. 2013. “Campaigning Against Europe? The Role of Euroskeptic Fringe and Mainstream Parties in the 200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12(1), 77-99.
- Aslanidis, Paris. 2016. “Is Populism an Ideology? A Refutation and a New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64(1S), 88-104.
- Boomgaarden, Hajo G., Andreas R. T. Schuck, Matthijs Elenbaas & Claes H. de Vreese. 2011. “Mapping EU Attitudes: Conceptual and Empirical Dimensions of Euroscepticism and EU Support.” *European Union Politics* 12(2), 241-266.
- Brack, Nathalie. 2020. “Towards a Unified Anti-Europe Narrative on the Right and Left? The Challenge of Euroscepticism in the 2019 European Elections.” *Research & Politics* 7(2), 1-8.
- Braun, Daniela, Swen Hutter & Alena Kerscher. 2016. “What Type of

- Europe? The Salience of Polity and Policy Issues in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European Union Politics* 17(4), 570-592.
- Canovan, Margaret. 2004. “Populism for political theorist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9(3), 241-252.
- Conti, Nicolò & Vincenzo Memoli. 2012. “The Multi-faceted Nature of Party-Based Euroscepticism.” *Acta Politica* 47(2), 91-112.
- De Vries, Catherine E. 2007. “Sleeping Giant: Fact or Fairytale? How European Integration Affects National Elections.” *European Union Politics* 8(3), 363-385.
- \_\_\_\_\_. 2010. “EU Issue Voting: Asset or Liability? How European Integration Affects Parties’ Electoral Fortunes.” *European Union Politics* 11(1), 89-117.
- \_\_\_\_\_. & Sara B. Hobolt. 2012. “When Dimensions Collide: The Electoral Success of Issue Entrepreneurs.” *European Union Politics* 13(2), 246-268.
- De Wilde, Pieter. 2011. “No Polity for Old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oliticization of European Integration.”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33(5), 559-575.
- Easton, David.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435-457.
- Fagerholm, Andreas. 2019. "United in Diversity: Examining the Diverging Attitudes towards the European Union on the Ideological Fringes." *Acta Politica* 54, 177-195.
- Flood, Christopher. 2002. “The Challenge of Euroscepticism.” in *The European Union Handbook*, edited by Jackie Gower, 73-82. London: Fitzroy Dearborn Publishers.
- Green-Pedersen, Christoffer. 2012. “A Giant Fast Asleep? Party Incentives and the Politicisation of European Integration.” *Political Studies* 60(1), 115-130.
- Halikiopoulou, Daphne, Kyraki Nanou & Sofia Vasilopoulou. 2012. “The Paradox of Nationalism: The Common Denominator of Radical Right and Radical Left Eurosceptic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1(4), 504-539.

- Hooghe, Liesbet, Gary Marks & Carole J. Wilson. 2002. "Does Left/Right Structure Party Positions on European Integr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8), 965-989.
- Hooghe, Liesbet & Gary Marks. 2009. "A Postfunctionalist Theory of European Integration: From Permissive Consensus to Constraining Dissensu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1-23.
- Hutter, Swen & Edgar Grande. 2014. "Politicizing Europe in the National Electoral Arena: A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West European Countries, 1970-2010."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2(5), 1002-1018.
- Jagers, Jan & Stefaan Walgrave. 2007. "Populism as Political Communication Style: An Empirical Study of Political Parties' Discourse in Belgiu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3), 319-345.
- Kitschelt, Herbert. 1994.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euer, Marianne. 2019. "The Tandem of Populism and Eurosceptic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e Light of the European crises."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4(1), 26-42.
- Kopecky, Petr & Cas Mudde. 2002. "The Two Sides of Euroscepticism." *European Union Politics* 3(3), 297-326.
- Kriesi, Hanspeter, Edgar Grande, Romain Lachat, Martin Colezal, Simon Bornscheir & Timotheos Frey. 200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National Spaces of Competition. West European Politic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6. "The Politicization of European Integra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4(1), 32.
- Marks, Gary & Carole J. Wilson. 2000. "The Past in the Present: A Cleavage Theory of Party Response to European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3), 433-459.
- \_\_\_\_\_, \_\_\_\_\_ & Leonard Ray. 2002. "National Political Parties and European Integ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3), 585-594.
- Moffitt, Benjamin & Simon Tormey. 2014. "Rethinking Populism: Politics,

- Mediations and Political Style.” *Political Studies* 62(2), 381-397.
- Mudde, Cas. 2004.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and Opposition* 39(4), 541-563.
- Neumayer, Laure. 2008. “Euroscepticism as a Political Label: The Use of European Union Issues in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New Member Stat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7(2), 135-160.
- Pirro, Andrea LP, Paul Taggart & Stijn Van Kessel. 2018. “The Populist Politics of Euroscepticism in Times of Crisis: Comparative Conclusions.” *Politics* 38(3), 378-390.
- Ray, Leonard. 2003. “When Parties Matter: The Conditional Influence of Party Positions on Voter Opinions about European Integr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65(4), 978-994.
- Rooduijn, Matthijs, Sarah L. de Lange & Wouter van der Brug. 2014. “A Populist Zeitgeist? Programmatic Contagion by Populist Parties in Western Europe.” *Party Politics* 20(4), 563-575.
- Sitter, Nick. 2001. “The Politics of Opposi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in Scandinavia: Is Euro scepticism a Government Opposition Dynamic?” *West European Politics* 24(4), 22-39.
- Spoon, Jae-Jae. 2009. “Holding Their Own: Explaining the Persistence of Green Parties in France and the UK.” *Party Politics* 15(5), 615-634.
- Stanley, Ben. 2008. “The Thin Ideology of Populism.”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13(1), 95-110.
- Steenbergen, Marco R. & Bradford S. Jones. 2002. “Modeling Multilevel Data Struct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1), 218-237.
- \_\_\_\_\_, Erica E. Edwards & Catherine E. de Vries. 2007. “Who’s Cueing Whom? Elite-Mass Linkages and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Union Politics* 18(1), 13-35.
- Szczerbiak, Aleks & Paul Taggart. 2000. *Opposing Europe: Party Systems and Opposition to the Union, the Euro and Europeanisation*. Brighton: Sussex European Institute.
- \_\_\_\_\_, & \_\_\_\_\_. 2008. “Conclusion: Opposing Europe? Three Patterns of Party Competition over Europe.” in *Opposing Europe? The Comparative Party Politics of Euroscepticism*, edited by

- Aleks Szcerbiak and Paul Taggart, 348-36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ggart, Paul. 1998. "A Touchstone of Dissent: Euroscepticism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3(3), 363-388.
- \_\_\_\_\_, & Aleks Szcerbiak. 2008. "Introduction: Opposing Europe? The politics of Euroscepticism in Europe." in *Opposing Europe? The Comparative Party Politics of Euroscepticism*, edited by Aleks Szcerbiak and Paul Taggart, 1-1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er Eijk, Wouter & Mark N. Franklin. 1996. *Choosing Europe? The European Electorate and National Politics in the Face of Un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an de Wardt, Marc, Catherine E. De Vries & Sara B. Hobolt. 2014. "Exploiting the Cracks: Wedge Issues in Multiparty Competi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6(4), 986-999.
- Van der Brug, Wouter, Gianni D'Amato, Joost Berkhout & Didier Ruedin. 2015. "A Framework for Studying the Politicisation of Immigration." in *The Politicisation of Migration*, edited by Wouter van der Brug, Gianni D'Amato, Didier Ruedin and Joost Berkhout, 1-18. London: Routledge.
- Van Kessel, Stijn. 2014. "The Populist Cat-dog: Applying the Concept of Populism to Contemporary European Party System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19(1), 99-118.
- Vasilopoulou, Sofia. 2009. "Varieties of Euroscepticism: the Case of the European Extreme Right."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Research* 5(1), 3-23.
- Weyland, Kurt. 2001.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Populism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33(1), 1-22.

Abstract

## **Party-based Euroscepticism: Euroscepticism driven by Ideological Motivations**

Geeyoung Hong ■ Yonsei University

Assuming that party-based Euroscepticism could expand to citizens' Euroscepticism and bring about changes in party system in European countrie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Eurosceptic parties and to explore the motivations leading these parties to adopt Eurosceptic positions. In particular, it tests whether their Eurosceptic positions are driven by differentiation-strategy motivation or by ideology based motivation. Analysing parties from 17 Western European member states and 11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member states, this study demonstrates clearly that parties' Euroscepticism is driven first and foremost by the ideology based on nationalism or populism. This finding implies that party-based Euroscepticism could affect not only sustainability of European integration but also party system in Europe.

Key Words: Euroscepticism, Strategy, Ideology, Populism, Nationalism, Political Cleavage

□ 논문접수일: 2023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19일, 개재확정일: 2023년 11월 20일